

가정폭력의 지리학 : 서울시 중랑구 지역 가정폭력 위험요인의 공간분포와 예측모형을 중심으로

노 성 훈**

국 | 문 | 요 | 약

그동안 상당한 수의 가정폭력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조사한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연구들은 개인 또는 가구 수준의 위험요인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지역사회 수준의 위험요인은 간과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했는데 첫째, 가정폭력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예측모형을 검증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위험영역모형'(risk terrain model)과 '반복피해모형'(repeat victimization model)을 적용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 서울시 중랑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저가빌라, 무질서(소음, 청소년비행), 주택보급율, 여성가구주율, 인구밀도가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가정폭력 위험요인 수가 증가할수록 가정폭력 발생 위험도 증가하였다. 위험요인이 4개 이상인 지역과 전년도에 가정폭력이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2015년에 가정폭력의 발생위험이 각각 2.1배, 2.7배 높았다. 가정폭력 위험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고려한 가중예측모형은 가정폭력 예측력을 다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가정폭력, 지역사회 통제, 범죄예측, 위험영역모형, 반복피해, 재피해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1053)

** 경찰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I. 서론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46.1%) 부부 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경험(45.5%)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정서적 폭력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이지만 적지 않은 응답자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폭력(자녀폭력 18.3%, 부부폭력 7.3%)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부부폭력 피해자는 종종 신체적 상해(6.2%)나 정신적 고통(17%)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정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해서는 분노와 적대감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면 경우에 따라서 부부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과 단기적 화해 사이의 악순환 속에서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진 피해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부부폭력은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 형성, 부모의 양육역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Mullender et al., 2002; Stephen, 1999).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자녀들에 대하여 엄마로서의 권위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청소년기의 자녀로부터 폭행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Jackson, 2003).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공감능력,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교에서는 분노조절장애 등 행동장애를 표출하기도 한다(Cunningham & Baker, 2004). 청소년기에 이르면 우울과 불안, 폭력성과 공격성이 증가하고 무단결석, 흡연, 음주,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엄명용, 2001; 이호택, 2012; Emery, 2011).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의 특성(연령, 혼인기간, 음주정도, 소득수준 등)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 밖에 존재하는 어떤 요인보다는 가정 내의 대인 관계 또는 상황적인 촉발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과 가정폭력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는 별개로 지역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가정폭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가정폭력의 ‘공간적 군집화’(spatial clustering) 경향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유형의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은 특정 지역사회 또는 특정 공간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rman, 1995).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Shaw & McKay, 1942)을 반영한 지역사회 통제역량 지표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집중적 불이익(concentrated disadvantage), 주거불안정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실업률과 중위소득수준 등 빈곤 관련 지표 외에 평균교육수준, 한부모가정 비율, 소수인종 비율 등도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Benson et al., 2003; Van Wyk et al., 2003). 몇몇 연구들은 지역사회 유대감,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등과 같이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역량의 보다 직접적인 지표를 강조하고 있다(Dekeseredy, et al., 2003; Frye, et al., 2008).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범치발생 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도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ved & Persson, 2008; Reed et al., 2009).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다수의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¹⁾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아동, 청소년, 피해여성 등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치료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다문화가정 중심), 법제도적 예방정책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가정폭력 발생을 지역사회나 공간적 특성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전형적인 ‘거리범죄’(street crime)와 비교해서 가정폭력이 외부 환경적 조건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국내 가정폭력 문헌에 있어서 간과하기 어려운 연구 공백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한국에서 실시된 가정폭력 연구들과 달리 가정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의 범죄 취약성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지역사회 변인들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

1)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가정폭력’이란 검색어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국내학술지논문과 학위논문을 검색한 결과 국내학술지논문 197건, 학위논문 105건 등 총 284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분석기법과 ‘위험영역모델링’(risk terrain modeling: 이하 RTM)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예측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정폭력 예측모형을 검증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수준 위험요인(risk factors)만을 고려한 연구뿐이다.²⁾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을 통해 확인된 지역사회 수준의 가정폭력 위험요인과 과거에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사건정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가정폭력과 지역사회 위험요인

지역사회 맥락 속에서 범죄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1930년대 미국 시카고학파의 사회생태학과 사회해체이론의 학문적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쇼와 맥케이는(Shaw & McKay, 1942) 청소년비행 연구를 통해 빈곤, 인종적·민족적 이질성, 그리고 주거불안정성과 같은 지역사회 내의 구조적 요인들과 범죄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상관관계는 지역사회 통제역량이라는 요인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지역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은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유대 또는 친밀감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기제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로 범죄나 비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Kornhauser, 1978; Bursik & Grasmick, 1993). 또한 샘슨과 그 동료들(Sampson et al., 1997; Sampson & Radudenbush, 1999; Sampson, 2003)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 지역사회 비공식적 통제기제의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집합적 효능감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를 의미한다.

2)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가해자의 자아통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폭력경험 등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예측모형을 검증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최은영, 2015).

지역사회 특성이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구조적 취약성과 지역사회 통제기제의 약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빈곤을 포함한 집중적 불이익(*concentrated disadvantage*)은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취약요인이다. 집중적 불이익은 빈곤층 비율, 정부보조금 수급비율, 홀부모가정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 실업률,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되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합성지표이다.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가정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설명이 있다. 첫째, 사회해체이론적 설명으로서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비공식 사회 통제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지역사회 또는 이웃의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주변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통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Benson & Fox, 2003:210). 둘째, 문화적 차원의 설명으로서 지역사회 내에는 적합한 행동규범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행동규범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 형성되며 이를 ‘생태학적으로 구조화된 규범’(ecologically structured norms)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집중적 불이익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부부나 연인, 부모자식과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범적으로 용인하는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ampson & Wilson, 1995:50).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집중적 불이익과 가정폭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Benson & Fox, 2003; Miles-Doan, 1998). 최근의 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낮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폭력 발생율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가정폭력의 재피해 위험성은 지역사회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onomi et al., 2014). 하지만 소수의 일부 연구들은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집중적 불이익이 가정폭력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Li et al., 2010), 심지어 친밀관계에 있는 여성파트너에 대한 살인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Breyer et al., 2015).

사회해체이론에서는 주거불안정성을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기제를 약화시키

는 구조적 취약요인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입과 유출이 빈번한 곳일수록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이 약하고 의사소통도 부족하게 된다. 낯선 이웃들 간에는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서로 개입하지 않는 태도가 보편화 되고 이웃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베이어와 동료들의 최근 연구(Beyer et al., 2015)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주거불안정성이 높을 수록 친밀관계에 있는 여성파트너에 대한 살인발생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이론적 예상과 달리 가정폭력 발생율이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지역 이 아닌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enson & Fox, 2003; Li et al., 2010; Wilson, 1987). 이러한 의외의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역사회의 집중적 불이익, 경제적·인종적 차별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난 한 소수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주거불안정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곳 주민들에게 낙후된 환경을 벗어날 여력이 없는 결과이며 또한 소수인종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역이 제약된 결과라는 것이다(Wilson, 1987). 보다 나은 주거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은 당사자들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유발시키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스트레스와 갈등이 증가시켜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Li et al., 2010:536).

지역사회의 사회통제 수준은 지역주민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유대감, 친밀감, 그리고 적극적 행동의지를 강조하는 집합적 효능감으로 측정된다. 브라우닝(Browning, 2002)의 연구에서 주민들 상호 간의 신뢰정도, 협조수준,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기준으로 측정된 집합적 효능감은 가정폭력 위험성과 부적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주민들 간의 유대, 신뢰, 비공식적 통제기제의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여성일 수록 가정폭력의 피해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다(DeKeseredy et al., 2003). 또한 지역사회 통제수준은 다른 위험요인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요인 또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동기의 감정적 학대경험은 성인기의 가정폭력 피해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인데 이러한 상관관계가 지역사회의 유대정도가 낮을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Obasaju et al., 2009). 매개효과의 예로서는 지역사회 집중적불이익 수준의 증가는 집합적 효능감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친밀관계 파트너 살인의 발생 위험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rowning, 2002).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유대감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Frye et al., 2008), 지역사회 유대감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의 가정폭력에 대한 영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aetano, Ramisetty-Mikler & Harris, 2010).

지역사회 무질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며 이웃들 간의 불신과 교류 단절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통제기제를 약화시킨다(Wilson & Kelling, 1984). 쿤라디(Cunradi,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위험성이 증가한다. 또한 지역사회 무질서는 여성의 음주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결과 음주를 많이 하는 여성일수록 가정폭력 피해의 위험성이 높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피해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의 무질서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아동기 감정적 학대가 성인기의 가정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Obasaju et al., 2009).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소득수준을 통제하면 지역사회 무질서가 친밀관계 파트너 살인의 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rye et al., 2008).

지역사회의 범죄율은 가정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위험요인 중의 하나로 연구되어 왔다. 지역사회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율과 가정폭력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집합적 효능감이나 약한 유대관계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통제기제의 결여에 의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폭력에 대해 관대한 사회규범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상에 상관없이 폭력사용을 정당화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그 결과 일반폭력과 가정폭력의 발생위험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Sampson & Wilson, 1995:50). 공식범죄통계를 활용한 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폭력범죄 발생률이 가정폭력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i et al., 2010). 하지만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집중적 불이익, 무질서의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일반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 있어서도 더 높은 피해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Keseredy et al., 2003; Raghavan et al., 2006). 또한 지역사회의 폭력범죄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가정폭력 피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aghavan et al., 2009).

그 밖에 인구밀도와 가정폭력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다. 지나치게 높은 인구밀도는 사회체제 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다루어져왔다(Byrne & Sampson, 1986). 연구에 따라 인구밀도는 가정폭력과 정적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Whitaker, 2014),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기도 했다(Hetling & Zhang, 2010). 외국인·이민자 밀집은 시카고학과 학자들에 의해 해체적 지역사회의 주요 특징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가정폭력 연구에서는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폭력 위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지역사회의 소득수준을 통제하면 외국인거주비율은 가정폭력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Browning, 2002; Frye et al., 2008), 오히려 이민자 집중 거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정폭력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Wright & Benson, 2010).

2. 가정폭력의 반복피해

범죄가 동일한 피해자 또는 피해대상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재피해’(revictimization) 또는 ‘반복피해’(repeat victimization)라고 부른다. 보다 정확하게는 “한 번의 범죄피해 이후 즉시 다음 범죄피해가 재차 발생하는 비율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Skogan, 1999:44). 반복피해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논리적 설명이 존재한다. 첫째, ‘사건 의존적 이론’(event-dependent theories)에 의하면 미래의 범죄사건은 이미 발생한 과거의 범죄사건에 의해 결정된다. 선행 범죄피해가 다음에 이어질 범죄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최초의 범죄피해로 인해 해당 가구의 범죄취약성이 범죄자에게 노출되었고 이 때문에 다음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Johnson & Bowers, 2004; Tseloni & Pease, 2003). 둘째, ‘위험 이질성 이론’(risk heterogeneity theories)에 의하면 반복피해의 원인은 피해

대상에 속해 있는 범죄 취약적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잠재적 범죄자에게 매력적인 범행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자에 의한 이질적인 유형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Johnson & Bowers, 2004; Tseloni & Pease, 2003).

반복피해 현상은 주거침입절도(Johnson & Bowers, 2004), 학교폭력(Pitts & Smith, 1995), 인종차별적 폭력(Sampson & Phillips, 1992), 상업범죄(Bower et al., 1998; Tilley, 1993), 일반폭력(Kilpatrick & Saunders, 1997), 성폭력(Arata, 2002)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서 확인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있어서도 반복피해 경향이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베리오즈와 그래디(Berrios & Grady, 1991)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 응급실을 찾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86%가 과거 한번 이상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40%는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영국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약 3분의 2 이상이 1년 안에 재차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by & Allen, 2004).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 경범죄 수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38.4%가 2년 안에 또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Klein, 2009). 경찰신고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2년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사건의 43%가 관할지역에 속한 전체 가구의 7%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Lloyd, Farrell, & Pease, 1994).

가정폭력의 반복피해 현상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적 설명은 ‘폭력의 순환’(circle of violence) 논리이다(Walker, 1984). 가정폭력은 긴장의 형성, 폭력의 발생, 그리고 가해자의 사과 및 화해로 전개되는 순환적 패턴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의 순환 저변에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배·통제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사건 의존적 이론을 가정폭력의 순환에 대입한다면 최초의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지배욕구, 통제욕구가 충족되고 아울러 그 과정에 피해자가 지닌 범죄취약성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의 이러한 경험은 다음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최초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회피적 행동을 보이거나 가해자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

해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추가적인 폭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Kuijpers, van der Knaap, & Winkel, 2012). 어떤 경우에 해당하던지 최초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반응이 가정폭력 재피해 위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반해 위험이질성 이론을 적용하면 가정폭력 재피해의 원인은 개인적, 관계적 수준의 위험요인들에 기인한 가정폭력 취약성이다. 가정폭력 위험성을 높이는 피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저학력·저소득의 젊은 흑인(미국의 경우) 여성이 대표적이다.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 등은 가정폭력피해 위험성을 높이는 발달과정적 특징이다. 심리적·행동적 특징에는 아동기 행동장애 및 반사회적성격장애, 우울증, 자살시도 경력, 음주 및 마약복용 등이 포함된다. 관계적 특징으로는 결혼관계가 아닌 동거관계, 미혼·이혼·별거상태, 상호 친밀감 결여 등이 반복피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paldi et al., 2012).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서울시 중랑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이다. 중랑구의 전체인구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176,390세대, 413,909명이다. 면적은 18.5km²로서 서울시 전체면적의 3.1%에 해당하며 총 1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³⁾ 2014년 가정폭력 신고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중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정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다. 서울시 전체 112신고사건을 활용하여 사전분석을 실시한 결과 1만 가구당 가정폭력신고건수의 서울시 전체 평균이 108.28건이며 이중 중랑구는 143.34건으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첫 번째 자료는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112신고 자료이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발생한 112신고사건 중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

3) 서울시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nang.go.kr>)

고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접수된 사건자료만을 활용하였다. 2014년도 1년간의 가정폭력신고 자료는 첫째, 가정폭력 위험요인을 선별하고, 둘째, 반복피해 예측모형에서 전년도 발생 가정폭력사건으로서 사용되었다. 2015년도 3개월간의 자료는 예측모형에서 예측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사건으로 사용되었다. 공간분석을 위해 먼저 112신고 원자료의 신고사건 중 발생지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을 제거하고 오류주소를 보정하는 등 정제과정을 거친 후 신고사건의 발생지 주소를 지도상의 위도와 경도 좌표로 변환하는 지오코딩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2014년 가정폭력 신고사건 2,284건과 2015년 3개월간 가정폭력 신고사건 480건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지역사회 위험요인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112신고 자료로부터 추출하였다.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중랑구에서 발생한 신고사건 중 폭력, 절도, 소음, 청소년비행 관련 신고들만을 선별한 뒤 지오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폭력신고 1,743건, 절도신고 490건, 소음신고 1,519건, 청소년비행신고 644건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⁴⁾

두 번째 자료는 서울시에서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행정동 단위의 공개 자료로서 가정폭력의 지역사회 위험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 있는 주택수, 외국인수, 이동인구수, 여성가구수, 가구수, 이혼건수, 인구밀도, 총인구수, 총가구수 등의 정보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insic.go.kr)의 무료공개자료 중 공간정보 분석 전문업체인 BIZ-GIS에서 제공한 자료인 중랑구의 공동주택(빌라)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였다. 국토부의 전국 공동주택 정보를 100미터 격자 단위의 공간정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빌라 가구 수와 가격 정보를 활용하였다.

분석단위는 중랑구 관할지역을 가로세로 100미터의 격자로 구분한 공간단위이다. 중랑구의 수치지도 위에 격자 레이어를 오버레이 한 뒤 중랑구의 건물 레이어와 겹치는 부분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산, 공원 등 주거인구가 없는 공간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1,292개의 격자가 분석대상에 포

4) 지오코딩 성공률은 2014년 가정폭력신고 98.0%, 2015년 가정폭력신고 87.7%, 폭력신고 86.8%, 절도신고 92.8%, 소음신고 90.27%, 청소년비행신고 92.41%였다.

함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격자 위에 점사상 자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가정폭력신고와 위험요인들을 중첩시킨 후 ArcMap의 spatial join 기법을 활용하여 격자에 가정폭력발생정보와 위험요인정보 값을 부여하였다(노성훈, 2015:247). 행정동 단위의 면사상 자료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자료는 중랑구 행정동 지도와 격자 레이어를 중첩시켜서 값을 부여했다. 만약 하나의 격자가 두 개 이상의 행정동에 걸쳐 있는 경우엔 중첩 면적이 가장 큰 행정동의 값을 격자에 부여했다.

2. 변수의 측정

‘2014 가정폭력’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중랑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사건수로서 격자 평균 발생건수는 1.77건이고 최대 39건, 최소 0건이 발생했다. ‘2015 가정폭력’은 201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중랑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사건수로서 격자 평균 0.37건이 발생했고 최대값은 8건이었다. 위험요인 유의성 검증을 위해 2014 가정폭력은 3건 이상 발생을 ‘다수’(=1), 나머지를 ‘소수’(=0)의 이변량변수로 변환하였다. 총 11개의 가정폭력 위험요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저가빌라는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호당 가격 5천만 원 이하의 빌라로 측정하였고 격자 평균 저가빌라 수는 1.29개였다. 저가빌라 존재유무에 따라 ‘있음’(=1)과 ‘없음’(=0)으로 코딩하였다. 폭력범죄, 절도범죄, 소음, 청소년비행은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중랑구에서 발생한 유형별 신고사건수를 의미한다. 폭력범죄와 절도범죄는 지역의 범죄발생수준을, 소음과 청소년비행은 지역의 무질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격자 평균 발생건수는 폭력범죄 1.35건, 절도범죄, 0.38건, 소음 1.18건, 청소년비행 0.5건이었다. 폭력범죄는 4건 이상, 절도범죄는 2건 이상, 소음은 3건 이상, 그리고 청소년비행은 2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다수’(=1), 나머지는 ‘소수’(=0)로 각각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행정동별 특성을 나타내는 6개 변수의 측정과 코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보급율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일반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외국인율은 지역별 전체인구 중 등록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인구이동율은 주거불안정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지

역별 전체인구 중 전입자와 전출자를 포함한 총 이동인구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여성가구주율과 이혼율은 지역사회 통제력의 약화와 관련 있는 가정폭력 위험요인들이다. 여성가구주율은 지역별 전체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로, 이혼율은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 당 인구수를 의미한다. 이상 6개 요인들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변량변수로 변환하였는데 주택보급율은 ‘낮음’(=1)과 높음(=0)으로, 나머지 요인들은 ‘높음’(=1)과 ‘낮음’(=0)으로 코딩하였다.

〈표 1〉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4 가정폭력	0,00	39,00	1,77	2,81
2015 가정폭력	0,00	8,00	,37	,86
저가빌라	0,00	45,00	1,29	3,81
폭력범죄	0,00	41,00	1,35	3,23
절도범죄	0,00	8,00	,38	,82
소음	0,00	26,00	1,18	2,15
청소년비행	0,00	19,00	,50	1,38
주택보급율	51,00	119,20	78,21	16,89
외국인율	,35	2,09	1,09	,49
인구이동율	28,65	46,15	34,06	5,57
여성가구주율	17,80	33,00	26,68	4,33
이혼율	1,27	5,77	2,65	1,21
인구밀도	11772,00	38268,00	23988,18	8135,86

3. 분석방법

가정폭력 관련 배경이론과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도출된 두 가지 가정폭력 발생 예측모형을 활용하였다. 첫째, 캐플란과 동료들(Caplan et al., 2013)이 개발한 범죄 예측모형인 RTM을 적용하였다. 먼저 가정폭력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지역 위험요인들을 확인한 후 이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위험지수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가정폭력 위험요인들을 레이어 형태로 지도 위에 중첩시켜 위험지수를

계산하고 그 값을 해당 지역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정폭력 위험지도를 생성하였다. 그런 다음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에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이 실제로 가정폭력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둘째, 반복피해모형으로서 가정폭력이 일부 가구나 개인에게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예측모형에 적용하였다. 예측대상인 가정폭력사건이 이전년도에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에 집중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① 가정폭력의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위험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저가빌라, 폭력범죄, 절도범죄, 소음, 청소년비행, 주택 보급율, 외국인 유출, 인구이동율, 여성가구주율, 이혼율, 인구밀도 등 총 11개 잠재적 위험요인 중 2014 가정폭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을 선별하고자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 ② 위험요인 레이어들을 중량구 격자지도 위에 중첩시킨 후 각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격자에 1의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격자별 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그림 1]).
- ③ 산출된 위험지수의 가정폭력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위험지수를 예측변수로 하고 2015 가정폭력을 결과변수로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표 4>).
- ④ RTM과 반복피해모형의 동시에 고려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위험지수와 2014 가정폭력을 예측변수로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2015 가정폭력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하였다(<표 5>).
- ⑤ 가정폭력 위험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표준화계수를 이용하여 가중치가 적용된 위험지수를 산출한 뒤 2014 가정폭력과 함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2015년 가정폭력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하였다(<표 6>, <표 7>, [그림 2]).

Ⅳ. 분석결과

가정폭력 발생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자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저가빌라, 소음, 청소년비행, 주택보급율, 여성가구주율, 인구밀도만이 2014 가정폭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2>). 5천만 원 이하의 저가빌라가 있는 격자에서의 가정폭력 발생 위험이 높았다. 소음과 청소년비행 문제가 심각한 곳일수록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동 단위에서는 주택보급율이 낮을수록, 여성가구주율과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해체이론 및 지역사회통제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저가빌라, 낮은 주택보급율, 높은 여성가구주율과 인구밀집은 집중적 불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들로서 지역사회의 사회통제기제를 약화시키는 요인들이다. 마찬가지로 소음, 청소년비행과 같은 무질서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통제의 부재, 해결역량의 결핍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에 반해 지역별 폭력범죄, 절도범죄, 외국인율, 인구이동율, 이혼율은 가정폭력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위험요인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 차이 카이제곱검정

위험요인	구분	가정폭력		
		다수	소수	계 χ^2
저가빌라		21,922**		
	있음	107(36.0)	190(64.0)	297(100.0)
	없음	224(22.5)	771(77.5)	995(100.0)
폭력범죄		1,234		
	다수	38(29.7)	90(70.3)	128(100.0)
	소수	293(25.2)	871(74.8)	1164(100.0)
절도범죄		1,924		
	다수	32(31.4)	70(68.6)	102(100.0)
	소수	299(25.1)	891(74.9)	1190(100.0)
소음		27,241**		
	다수	78(40.8)	113(59.2)	191(100.0)
	소수	253(23.0)	848(77.0)	1101(100.0)

위험요인	구분	가정폭력		
		다수	소수	계 χ^2
청소년비행				15.086**
	다수	51(39.8)	77(60.2)	128(100.0)
	소수	280(24.1)	884(75.9)	1164(100.0)
주택보급율				8.354**
	높음	122(21.6)	442(78.4)	564(100.0)
	낮음	209(28.7)	519(71.3)	728(100.0)
외국인율				.195
	높음	205(26.0)	582(74.0)	787(100.0)
	낮음	126(25.0)	379(75.0)	505(100.0)
인구이동율				1.711
	높음	118(27.9)	305(72.1)	423(100.0)
	낮음	213(24.5)	656(75.5)	869(100.0)
여성가구주율				11.212**
	높음	228(28.9)	562(71.1)	790(100.0)
	낮음	103(20.5)	399(79.5)	502(100.0)
이혼율				1.187
	높음	97(27.8)	252(72.2)	349(100.0)
	낮음	234(24.8)	709(75.2)	943(100.0)
인구밀도				5.866*
	높음	197(28.3)	498(71.7)	695(100.0)
	낮음	134(22.4)	463(77.6)	597(100.0)

* $p < .05$, ** $p < .01$ (양측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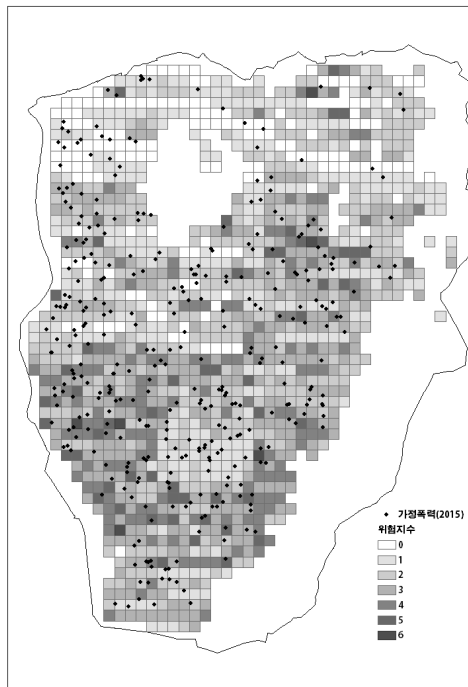
가정폭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위험요인들에게 각각 1점씩 부여한 뒤 이를 합산하여 0점부터 6점까지의 가정폭력 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중랑구 격자지도에 적용한 뒤 그 위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한 가정폭력을 [그림 1]과 같이 오버레이 하였다. 그 결과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험지수가 3이상인 격자가 전체 조사지역의 40.47%를 차지하는데 이곳에 전체 가정폭력 사건의 58.13%가 발생했다. 전체 조사지역의 16.49%를 차지하는 위험지수 4이상의 격자에 가정폭력 사건 30.63%가 집중되었다.

다음으로 위험지수 증가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가정폭력 위험지수와 2015 가정폭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격자의 가정폭력 위험지수가 1점씩 증가할 때마다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이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가정폭력 위험지수를 연속형이 아닌 범주형 변수로 취급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위험지수가 0인 격자들을 비교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각 위험지수 집단이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든 범주에 있어서 가정폭력 위험요인은 2015년 가정폭력 발생의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위험지수가 증가할수록 가정폭력 예측력도 함께 증가하였다. 가정폭력 위험요인이 없는 곳과 비교하여 1개의 위험요인이 있을 때 가정폭력 발생 확률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6개의 위험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이 약 20배 더 높았다.

[그림 1] 지역별 위험지수와 2015년 가정폭력



〈표 3〉 로지스틱 회귀분석: 위험지수(연속형)가 2015년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

	b	SE	Wald	df	Exp(b)
위험지수 (0-6)	.387	.052	55.721	1	1.473**
(상수)	-2.131	.148	207.257	1	.119**

-2로그우드=1331.917; Cox & Snell R^2 = .044; Nagelkerke R^2 = .067* $p < .05$, ** $p < .01$ (양측검정)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위험지수(범주형)가 2015년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

	b	SE	Wald	df	Exp(b)
위험지수=1	.686	.333	4.250	1	1.987*
위험지수=2	.869	.321	7.345	1	2.384**
위험지수=3	1.330	.318	17.538	1	3.780**
위험지수=4	1.671	.337	24.652	1	5.317**
위험지수=5	2.098	.401	27.354	1	8.149**
위험지수=6	2.980	.914	10.640	1	19.692**
(상수)	-2.287	.291	61.730	1	.102**

-2로그우드=1330.242; Cox & Snell R^2 = .046; Nagelkerke R^2 = .069* $p < .05$, ** $p < .01$ (양측검정)

<표 5>는 위험지수와 2014년 발생 가정폭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한 결과를 보여준다. 위험지수는 위험요인이 4개 이상인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2014 가정폭력은 2014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 3건 이상 발생한 집단과 2건 이하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투입했을 때 위험지수(≥ 4)와 2014 가정폭력(≥ 3 건)은 2015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을 각각 153%, 197.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를 함께 투입했을 때 위험지수 4점 이상인 경우 2015가정폭력 발생 확률이 108.4% 증가하였고, 2014년 가정폭력이 3건 이상인 경우엔 2015년 발생 가능성이 167.1% 증가하였다. 또한 두 변수를 모두 투입한 예측모형의 모형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환경적 위험요인과 가정폭력의 반복피해발생의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예측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위험지수와 2014년 가정폭력이 2015년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위험지수(≥ 4)	.928 (.160)	2,530**			.734 (.166)	2,084**
2014가정폭력(≥ 3 건)			1,091 (.141)	2,976**	.983 (.144)	2,671**
(상수)	-1,397 (.076)	.247**	-1,552 (.085)	.212**	-1,662 (.090)	.190**

모형1: -2로그우드=1338.766; Cox & Snell $R^2 = .024$; Nagelkerke $R^2 = .037$

모형2: -2로그우드=1332.40; Cox & Snell $R^2 = .044$; Nagelkerke $R^2 = .067$

모형3: -2로그우드=1313.753; Cox & Snell $R^2 = .058$; Nagelkerke $R^2 = .088$

* $p < .05$, ** $p < .01$ (양측검정)

다음으로 가정폭력 위험요인들이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한 예측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위험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식에 모두 투입하여 2014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저가빌라, 소음, 청소년비행, 외국인울, 여성가구주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6>). 카이제곱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저가빌라, 소음, 청소년비행, 여성가구주율은 가정폭력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인울과 가정폭력 간에는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이제곱분석 결과와 달리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주택보급율과 인구밀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요인들만을 로지스틱 회귀식에 투입하고 표준화 계수(β 값)를 산출하여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⁵⁾ 여성가구주율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저가빌라, 소음, 외국인울, 청소년비행의 순서였다. 각 위험요인별로 표준화 계수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했고 이를 합산하여 ‘가중(weighted) 위험지수’를 산출했다. [그림 2]는 중랑구의 가중위험지수 지도 위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가정폭력 발생 위치를 오버레이 한 결과이다. 가중위험지수의 표준점수가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정폭력사건이 분포한 것을 볼 수 있다.

5) SPSS 통계 패키지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에서 표준화계수를 산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Jason, E. King(2007), “Standardized Coefficient in Logistic Regression”의 표준화계수 산출 공식을 활용하였다.

〈표 6〉 로지스틱 회귀분석: 위험요인이 2014년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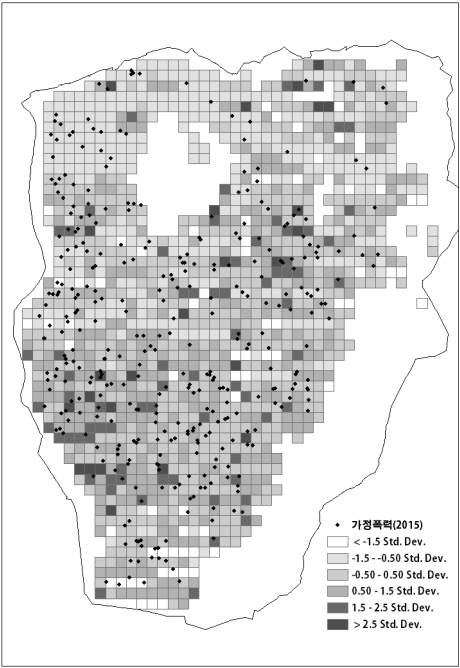
	모형1			모형2			
	b	SE	Exp(b)	b	β	SE	Exp(b)
저가빌라	.617	.150	1.853**	.657	.0527	.146	1.930**
폭력범죄	-.154	.230	.857				
절도범죄	.152	.242	1.164				
소음	.664	.179	1.942**	.699	.0467	.173	2.011**
청소년비행	.462	.209	1.587*	.467	.0266	.205	1.595*
주택보급율	-.168	.210	.845				
외국인율	-.458	.218	.633*	-.480	-.0446	.177	.619**
인구이동율	.088	.183	1.092				
여성가구주율	.492	.238	1.635*	.619	.0575	.181	1.858**
이혼율	.258	.148	1.294				
(상수)	-1.547	.271	.213**	-1.507		.123	.222**

모형1: -2로그우드=1402.092; Cox & Snell $R^2 = .051$; Nagelkerke $R^2 = .076$

모형2: -2로그우드=1406.822; Cox & Snell $R^2 = .048$; Nagelkerke $R^2 = .071$

* $p < .05$, ** $p < .01$ (양측검정)

[그림 2] 지역별 가중위험지수와 2015년 가정폭력



가중위험지수의 표준점수(z 값)를 구하여 1점 이상과 1점미만으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가중위험지수($z \geq 1$)와 2014 가정폭력(≥ 3 건)의 두 변수를 2015 가정폭력 예측모형에 투입하였다(표 7). 가중위험지수만을 고려했을 때 표준점수 1이상인 경우 가정폭력 위험성이 154.4% 증가하였다. 두 변수가 모두 투입된 모형에서는 가중위험지수 표준점수 1이상과 2014년 가정폭력 3건 이상 발생은 가정폭력 위험성을 각각 116.7%, 179.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비가중모형과 비교할 때 가중모형의 가정폭력 예측력이 다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중위험지수와 2014년 가정폭력이 2015년 가정폭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가중위험지수($Z \geq 1$)	.934 (.189)	2,544**			.773 (.195)	2,167**
2014가정폭력(≥ 3 건)			1,091 (.141)	2,976**	1,027 (.144)	2,793**
(상수)	-1,333 (.072)	.264**	-1,552 (.085)	.212**	-1,630 (.089)	.196**

모형1: -2로그우드=1367.686; Cox & Snell $R^2 = .018$; Nagelkerke $R^2 = .027$

모형2: -2로그우드=1332.40; Cox & Snell $R^2 = .044$; Nagelkerke $R^2 = .067$

모형3: -2로그우드=1317.508; Cox & Snell $R^2 = .055$; Nagelkerke $R^2 = .084$

* $p < .05$, ** $p < .01$ (양측검정)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높이는 지역사회 요인들과 가정폭력의 반복 피해 특성을 기초하여 가정폭력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이변량 분석 결과 서울시 중랑구에서 가정폭력의 유의한 예측요인들은 경제적 불이익, 무질서, 지역사회 통제력 약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저가 빌라가 있고, 소음과 청소년비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주택보급율이 낮고 여성가구주 거주비율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들에서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이러한 위험요인들로 구성된 가

정폭력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위험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다음해의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예측력이 증가하였다. RTM과 반복피해 모형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위험요인 4개 이상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전년도에 가정폭력이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2.6배 이상 가정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위험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고려한 가중모형을 적용한 결과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정폭력 위험성이 가중위험지수의 표준점수가 1이상인 지역은 약 2.2배, 전년도 가정폭력 3건 이상 발생 지역은 2.8배 높았다.

가중폭행과 성폭행에 대해 유사한 예측모형을 적용한 이전의 국내 연구와 비교할 때 가정폭력은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낮게 나왔다. 노성훈(2015)의 범죄예측모형 검증 연구에서 위험요인 1개 증가는 가중폭행 발생의 승산 3.123배, 성폭행 발생 승산 2.911배 증가시킨 반면,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위험요인 1개 증가는 가정폭력 발생 승산 1.473배 증가에 그쳤다. 비록 조사지역과 투입한 위험요인이 다르지만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가정폭력이 가중폭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범죄에 비해 지역사회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타 유형의 폭력범죄에 비해 개인적, 관계적 요인에 기인한 위험요인들이 가정폭력 발생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과 연구방법상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신고 자료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신고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가정폭력 신고율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무질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이웃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신고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racia & Herrero, 2007).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본인 그리고 이웃에게 발생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훈·노성훈·조준택, 2016).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성이 가정폭력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쩌면 신고율의 차이에 의해 매개된 결과일 수 있다. 경찰신고 자료

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112신고 자료에는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착오에 의한 오류신고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심각성 수준에 있어서도 단순한 말다툼부터 신체상해를 동반한 폭행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사건의 진정성과 심각성은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보가 되고 그 내용은 112신고 데이터의 ‘종결내용’ 항목에 서술형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신고사건별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신고접수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모든 신고를 동일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취급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요인들이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실제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개인 수준 또는 가구 수준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Benson & Fox, 2003:211). ‘구성 효과’(compositional effect)의 문제로서 예를 들어, 빈곤한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빈곤한 가정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의 가정폭력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가진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발생률이 높은 것은 지역사회통제이론의 주장처럼 지역의 유대가 약화되고 통제역량이 저하된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지역사회가 가정폭력 위험성이 높은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분석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해 몇 가지 연구방법상의 취약점이 존재한다. 지역사회통제이론의 주요 요소인 지역사회 유대감, 집합적 효능감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변수가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설명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것도 이와 같은 주요 지역사회 변수들이 누락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지역사회 위험요인들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나 저가빌라만은 2010년도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행정동 단위로 측정된 변수를 격자 단위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생태학적 오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가정폭력 연구가 개인 또는 가구 단위의 예측요인에만 초점을 맞춘데 반해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가정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연구는 거의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사법기관의 공식통계를 활용한 연구들이 일부 있으나 아직까지 112신고통계를 활용한 가정폭력연구는 없다. 112신고통계는 가정폭력이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를 통해 최초로 경찰에 인지되는 단계에 수집되는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사건처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왜곡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설문조사과정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우려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연구는 가정폭력 신고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공식범죄통계와 설문조사에만 의존해왔던 기존의 가정폭력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셋째, 공간 분석기법과 RTM 범죄예측모형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가정폭력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것과 같이 미시적 공간단위를 적용하여 가정폭력의 공간분포와 예측모형을 검증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가정폭력정책에 있어서 사전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인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들은 처벌의 강화와 경찰의 적극적 개입으로 대표되는 억제정책,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 등 사후적 지원정책, 그리고 가해자 치료 등 재발방지정책 등으로 대표된다. 이에 반해 가정폭력 위험요인들을 기반으로 한 예방중심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주로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가족관계 또는 친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외부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목적의 사전적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가정폭력의 발생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가정폭력의 문제에 접근하면 보다 효과적인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가능성이 열린다. 영국의 ‘가정폭력위험대응 기관협의회’(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는 지역사회 기반의 가정폭력 예방정책 중의 하나이다(김한균, 2011). 지역사회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지역에 존재하는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각 지역사회별로 특화된 예방정책을 수립하여 국가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폭력 솔루션팀’은 지역사회 내의 가정폭력 관련 전문가들 간의 협력네트워크이다. 여기에는 상담, 의료, 법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여성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장미혜 외, 2015:172-173). 이러한 노력들은 가정폭력 피해

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공동체 차원의 의지인 집합적 효능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제기제를 약화시키는 취약한 주거환경과 무질서 등의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가정폭력 예측모형을 적용하여 가정폭력 취약지역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한균(2011). “가정폭력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기관의 협력대응: 영국 MARAC의 경우,” 형사정책연구 소식, 봄호: 18-25.
- 노성훈(2015). “시공간 분석과 위험영역모델링을 활용한 범죄예측모형의 예측력 검증,”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239-266.
-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8권: 149-178.
- 이호택(2012).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여성연구 제83권 제2호: 101-147.
- 이훈·노성훈·조준택(2016).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의향 영향요인: 서울특별시 가정폭력 빈발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제10권 제1호: 3-38.
- 장미혜·박복순·노성훈·이훈·정지연(2015). “지역별 여성안전 현황과 위험대응역량 강화방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은영(2015).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예측모형: 가해자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정임 외(2013).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Arata, C. (2002) Child Sexual Abuse and Sexual Revictimization. *Clinical Psychology*, 9: 135-164.
- Benson, M. L., & Fox, G. L. (2003). Concentrated Disadvantage, Economic Distress,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3): 207-235.
- Benson, M. L., Fox, G. L., DeMaris, A., & van Wyk, J. (2003). Neighborhood Disadvantage, Individual Economic Distress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 207-235.

- Berrios, D. C., & Grady, D. (1991). Domestic Violence. Risk Factors and Outcomes. *Th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155(29): 133-135.
- Beyer, K. M. M., Layde, P. M., Hamberger, L. K., & Laud, P. W. (2015). Does Neighborhood Environment Differentiate Intimate Partner Femicides From Other Femicides? *Violence Against Women*, 21(1): 49-64.
- Beyer, K., Wallis, A. B., & Hamberger, L. K. (2015).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16(1): 16-47.
- Bonomi, A. E., Trabert, B., Anderson, M. L., Kernic, M. A., & Holt, V. L. (2014).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eighborhood Income: A Longitudinal Analysis. *Violence against Women*, 20(1): 42-58.
- Bowers, K. J., Hirschfield, A. & Johnson, S. D. (1998). Victimization Revisited: A Case Study of Non-residential Repeat Burglary on Merseysid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8: 429-52.
- Browning, C. R. (2002). The Span of Collective Efficacy: Extend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to Partner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833-850.
- Byrne, J. M., and Sampson, R. J. (1986). *The Social Ecology of Crime*. New York: Springer-Verlag.
- Caetano R, Ramisetty-Mikler S, Harris T. R. (2010).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Male to Female and Female to Mal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1): 1986-2009.
- Capaldi, D. M., Knoble, N. B., Shortt, J. W., & Kim, H. K. (2012).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Partner Abuse*, 3(2): 231-280.
- Cunningham, A., & Baker, L. (2004). *What about Me! Seeking to Understand a Child's View of Violence in the Family*. London, ON: Centre for Children & Families in the Justice System.

- Cunradi, C. B. (2007). Drinking Level, Neighborhood Social Disorder, and Mutu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lcoholism: Clinical & Experimental Research*, 31: 1012-1019.
- DeKeseredy, W. S., Schwartz, M. D., Alvi, S., & Tomanszewski, E. A. (2003). Perceived Collective Efficacy and Women's Victimization in Public Housing. *Criminal Justice*, 3(1): 5-27.
- Emery, C. R. (2011). Controlling for Selec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Behavior Problems and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 1541-1558.
- Frye, V., Galea, S., Tracy, M., Bucciarelli, A., Putnam, S., & Wilt, S. (2008). The Role of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Risk of Intimate Partner Femicide in a Large Urban Are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8): 1473-1479.
- Gracia, E., & Herrero, J. (2007). Perceived Neighborhood Social Disorder and Attitudes toward Reporting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6): 737-752.
- Hetling, A., & Zhang, H. (2010). Domestic Violence, Poverty, and Social Services: Does Location Matter? *Social Science Quarterly*, 91(5): 1144-1163.
- Jackson, D. (2003). Broadening Constructions of Family Violence: Mother's Perspectives of Aggression from their Children.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8: 321-329.
- Johnson, S. D., & Bowers, K. J. (2004). The Burglary as Clue to the Future: The Beginnings of Prospective Hot-Spotting.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2): 237-255.
- Kilpatrick, D. & Saunders, B. E. (1997). Prevalence and Consequences of Child Victimization: Resul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 Final Report submitted November 1997 to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King, J. E. (2007). Standardized Coefficients in Logistic Regr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west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Antonio, TX.
- Klein, A. (2009). Practical Implications of Current Domestic Violence Research: For Law Enforcement, Prosecutors, and Judge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Kornhauser,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ijpers, K. F., van der Knaap, L. M., & Winkel, F. W. (2012). Risk of Revictimiz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ole of Attachment, Anger and Violent Behavior of the Victim. *Journal of Family Violence*, 27(1): 33-44.
- Li, Q., Kirby, R. S., Sigler, R. T., Hwang, S. S., LaGory, M. E., & Goldenberg, R. L. (2010). A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 Household, and Neighborhood Correlat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Low-income Pregnant Women in Jefferson County, Alabama.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3): 531-539.
- Lloyd, S., Farrell, G., & Pease, K. (1994). Preventing Repeated Domestic Violence: A Demonstration Project on Merseyside. Police Research Group, Crime Prevention Unit Paper no. 49, London: Home Office.
- Miles-Doan, R. (1998). Violence between Spouses and Intimates: Does Neighborhood Context Matter? *Social Forces*, 77(2): 623-646.
- Mullender, A., Hague, G., Iman, U., Kelly, L., Malos, E., & Regan, L. (2002). Children's Perspectives on Domestic Violence. London: Sage.
- Naved, R. T., & Persson, L. A.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Physical Spousal Abuse of Women During Pregnancy in Bangladesh.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4: 71-78.
- Obasaju, M. A., Palin, F. L., Jacobs, C., Anderson, P., & Kaslow, N. J. (2009). Won't You be My Neighbor? Using an Ecological Approach to Examine

- the Impact of Community on Re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1): 38-53.
- Pitts, J., & Smith, P. (1995). Preventing School Bullying. Crime Prevention and Detection Series, no. 63, Police Research Group. London: Home Office.
- Raghavan, C., Mennerich, A., Sexton, E., & James, S. E. (2006). Community Violence and Its Direct, Indirect, and Mediating Effects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12(12): 1132-1149.
- Reed, E., Silverman, J. G., Welles, S. L., Santana, M. C., Missmer, S. A., & Raj, A. (2009). Associations between Perceptions and Involvement in Neighborhood Violenc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Me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4: 328-335.
- Roh, S., Kim, E., & Yun, M. (2010). Criminal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A Multilevel Approach.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3): 301-310.
- Sampson, A. & Phillips, C. (1992). Multiple Victimization: Racial Attacks on an East London Estate. Home Office Crime Prevention Unit Paper 36. London: Home Office.
- Sampson, R. J., & Raudenbush, S. W.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603-651.
- Sampson, R. J., & Wilson, W. J. (1995).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J. Hagan & R.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pp. 37-5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2003). The Neighborhood Context of Well-being. *Perspectives in Biology & Medicine*, 46: S53-S64.
- Sampson, R. J., Raudenbush, S.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haw, C., & McKay, H.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rman, L. W. (1995). Hot Spots of Crime and Criminal Careers of Places. In J.E. Eck & D. Weisburd, (Eds.) *Crime and Place. Crime Prevention Studies* 4. Monsey, NY: Willow Tree Press.
- Skogan W. G. (1999). Victim Surveys at Century's End. In J.J. M. Van Dijk, R.G.H. Van Kaam, & J. Wemmers, (Eds.) *Caring for Crime Victims* (pp.41-55).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 Stephens, D. L. (1999). Battered Women's Views of Their Childr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731-746.
- Tilley, N. (1993). Crime Prevention Unit Series Paper no. 45. London: Home Office
- Tseloni, A. & Pease, K. (2003). Repeat Personal Victimization: 'Boosts' or 'Flag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1): 196-212.
- Van Wyk, J. A., Benson, M. L., Fox, G. L., & DeMaris, A. (2003). Detangling Individual-, Partner-, and Community-level Correlates of Partner Violence. *Crime and Delinquency*, 49: 412-438.
- Walby, S., & Allen, J. (2004). Home Office Research Study 276. London: Home Office.
- Walker L. E. A. (1984). *The Battered Woman Syndrome*. New York: Springer.
- Weiss, L., Ompad, D., Galea, S., & Vlahov, D. (2007). Defining Neighborhood Boundaries for Urban Health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2(6Suppl.): S154-S159.
- Whitaker, M. P. (2014). Linking Community Protective Factors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Violence Against Women*, 20(11): 1338-1359.
- Wilson, J. Q., & Kelling, G. L. (1982).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March: 29-38.
-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eographies of Domestic Violence : Focusing on Spatial Distributions of Risk Factors and Predictive Modeling in Jungnang-Gu, Seoul

Roh, Sung-Hoon

Despite the abundant domestic violence studies, few Korean studies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causes of domestic violence under the community context. Exclusively focusing on individual- or household-level risk factors, most Korean studies of domestic violence have disregarded community-level risk factors. The current study pursued two research goals: identifying significant neighborhood-level factors and testing a forecasting model for domestic violence. This study applied the 'Risk Terrain Modeling' method and the 'Repeat Victimization Model' to predict domestic violence. Using calls-for-service data,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violence incidents that occurred in Jungnang-Gu, Seoul between 2014 and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low-priced apartments, community disorder(noise, juvenile delinquency), housing supply rates, female-headed household rates, population density. As the number of community risk factors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domestic violence occurrence increased. The likelihood of domestic violence in 2015 was 2.1 times greater in the areas with 4 or more risk factors, and that was 2.7 times greater in the areas where 3 or more domestic violence incidents had occurred in 2014. The weighted forecasting model, which took into account the relative effect size of risk factors, slightly improved the predictability. Finally, community-oriented strategies for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were discussed.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Keywords: domestic violence, community control, crime forecasting, risk terrain model, repeat victimization, revictimization